

“군공항 반대” 육탄저지, 김지사·무안군수 만남 무산

무안 범대위, 군수 이동 원천차단
김영록 지사 행사장 출입도 막아
김 지사 ‘무안군민과 대화’ 파행
17일 시도지사 군공항 회동 ‘협로’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김산 무안군수가 만나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타협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됐던 ‘무안 도민과의 대화’ 행사가 반쪽짜리로 전락했다.

무안의 시민단체가 김 지사와 김 군수의 만남을 막기 위해 육탄 저지에 나서면서 대화 자체가 원천 차단됐다.

오는 17일 예정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지사 회동의 핵심 쟁점인 광주 군공항 3자협의체 논의도 차질이 예상된다.

이날 김영록 지사와 무안군 ‘도민과의 대화’가 파행을 빚었다.

김산 군수는 ‘무안전투비행장무안이전 반대범군민대책위(이하 범대위)’가 무안군청 1층을 점거하면서 행사장인 무안종합스포츠파크로 이동하지 못했다. 행사는 김 군수의 참석없이 시작됐다. 시·군 단체장이 참석하지 못한 채 도민과의 대화가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범대위는 행사 시작 1시간 전인 오후 12시30분부터 행사장 입구를 차단하고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도민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한 주민들의 퇴장을 요구하면서 행사 진행을 막았다.

행사 시작 20분 전인, 1시40분께 김영록 지사가 탑승한 차량이 행사장 입구에 도착하자 범대위가 차량 진입을 막아서는 등 거센 항의를 전개했다. 차에서 내린 김 지사와 범대위 측은 3시까지 약 1시간 20분간 대치했다.

범대위는 도민과의 대화에서 군공항 관련 발언 중단, 범대위 측의 행사장 입장 등을 요구했다.

김 지사 측은 이에 시위 중단, 향후 군공

항 관련 범대위와의 공개토론 등을 요청했다.

그러나 범대위 측은 “광주 군공항을 절대 받고 싶지 않으니 앞으로도 전남도는 군공항에 대한 공개토론이나 의견 표명을 하지 말아달라”고 주장했다. 양 측은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범대위 측은 “김 지사는 이곳을 떠나라”고 외치면서 행사 중단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행사 강행 의사를 밝히면서 경찰의 동선 확보에 따라 이동했다. 범대위가 행사장 입구를 차단하면서 일대는 전남도 관계자, 경찰, 범대위 등이 뒤섞여 아수라장이 됐다.

어렵게 행사장에 들어선 김 지사는 “도민과의 대화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해 유감이다”며 “무안에 민간공항·군공항 동시 이전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별도의 토론회를 통해 논의할 수도 있는 건데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김산 군수와 군의원들 참석에 여러 애로가 있는 것 같다. 군수 참석을 기다리겠다”고 했지만 김 군수와 무안군의회의원들이 참석하지 못하면서 행사는 반쪽짜리로 진행됐다.

김 지사의 거듭된 대화 요청에도 응하지 않던 김 군수가 이날 도민과의 대화에 참석하기로 하면서 군공항 이전에 대한 진전된 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범대위의 저지로 만남 자체도 성사되지 못했다.

오는 17일 ‘무안군’ 없이 진행되는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 간의 군공항 이전 협의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이날 “광주·무안 KTX가 개통하는 2025년까지 광주 민간공항은 무안국제공항에 와야한다”며 “이제는 객관적 데이터를 갖고 이야기를 할 때다. 광주시와도, 전남도와도 무안군이 나서서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황지 기자 hwangji.choi@jnilbo.com



13일 광주은행 3층 KJ상생마루에서 열린 ‘제29회 녹색환경대상 시상식’에서 수상자와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 이성기 조선대 명예교수, 고병일 광주은행장, 이재욱 전남일보 사장, 박연재 영산강유역환경청장, 남동우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이사, 신민섭 해양환경공단 목포지사 과장,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오광석 동아여중 교장, 김종식(김강심 상임의장 대리수상) 신안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나건호 기자

‘광주·전남 환경지킴이’ 영광의 얼굴들

제29회 녹색환경대상 시상
종합대상 광주 남구 수상
주민 동참 탄소중립 선도
“환경보호 활동 매진” 당부

광주·전남에서 깨끗한 환경 만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기관과 단체에 대한 시상식이 열렸다. 13일 본보와 광주은행이 공동주최하고 전남도·영산강유역환경청·GS칼텍스가 후원하는 제29회 녹색환경대상 시상식이 광주은행 본점 3층 대강당 KJ상생마루에서 개최됐다.

녹색환경대상은 이날 5개 부문에서 시상이 이뤄졌으며 종합대상에 상패·상금 500만원, 3개 부문별 대상 수상자에 상패

·상금 300만원, 서한태환경상 수상자에 상패·상금 100만원이 수여됐다.

종합대상(환경부장관상)은 광주 남구가 차지했다. 광주 남구는 ‘주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2045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설정해 주민들의 일상생활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하는데 주력했다.

지난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해 기초지자체 최초로 주민참여 친환경에너지전환 축제를 열었다. 지난 9월 ‘남구가 지구를 부탁해’ 주제로 축제를 열어 탄소제로, 에너지제로, 쓰레기제로를 의미하는 3 ZERO를 주제로 38개 체험부스를 운영해 4500명의 주민이 탄소중립 필요성을

체감하는 성과를 냈다.

생활속환경실천부문 대상은 해양환경공단 목포지사가 받았다. 목포지사는 해양재해 쓰레기 부유물 수거, 해양시설 발생 폐기물 수거 등을 통해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했다.

목포지사는 도내 유일한 해양환경보전 공공기관으로서 청항선 2척과 전문인력 18명을 활용해 목포항 일원 해양쓰레기 수거로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 활동을 펼친 노력이 반영됐다.

자연환경보전부문 대상을 받은 신안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민·관이 뭉쳐 지속적 바다 쓰레기수거활동을 벌이며 해양 생태계 보전에 매진했다. ▶2면에 계속

조진용 기자 jinyoung.cho@jnilbo.com



www.acc.go.kr

다양한 문화가 숨 쉬고
함께 빛날 수 있는 곳

A | C | C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SIA CULTURE CENTER



ACC 누리소통망에서 다양한 소식과 이벤트를 만나보세요!